

차례

전도관 7편

- 一. 동방의인
- 二. 누가 동방의 의인이신가?
- 三. 동방의인 영모님은 조희성님에게 합일되시어 일체로 완성되시니 이분이 동방의 의인이냐.

三. 동방의인 영모님은 조희성님에게 합일되시어 일체로 완성되시니 이분이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의인이 박태선 영모님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동방의인이 우리나라에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으로 떠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와 같이 엄청난 희망찬 내용으로 굳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왕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린다는 동방의인이 박태선 영모님이라고 해서 기뻐할 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방의인이 그 분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가 서두부터 계속 전도관 역사는 박태선 영모님의 역사이고 박태선 영모님의 역사는 구세주 조희성님의 출현을 위한 역사였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박태선 영모님을 시작으로 세 분의 의인이 출현해야 완성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비가(隱秘歌)에 부자신중삼인출(父子神中三人出), 삼진신중일인출(三眞神中一人出)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삼신(三神)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세 분 신이 일체로 합일되어 한 분으로 출현한다고 하는 것이다.(三聖一體一人出) 성경에서도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三位一體).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묵3:21).”라고 하였다.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예언된 말씀이다. 세 분이 한 보좌에 함께 앉으신다고 한 이 말씀은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된다는 뜻이다.(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 때문에 동방의인인 박태선 영모님이 출현하였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박태선님이 세계 왕들을 다 굴복시키시겠구나라고 생각해서는 큰 착각이다. 동방의인인 박태선 영모님은 지금부터 하실 일이 너무도 많게 된다. 박태선 동방의인은 세 분 하나님을 출현시켜 일체로 완성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할이 성공을 거두어야 세계 열국 왕들을 굴복시키는 왕중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완성된 분이 이기신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박태선 동방의인을 영모(靈母)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와 같은 세 분 하나님을 영적으로 낳아 키워서 일체로 완성시켜야 하는 '엄마'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1) 격암비결에는 동방의인으로 박태선님을 강하게 증거하시고 끝에는 조씨 성으로 오시는 분에게로 합일되시어 완성되심을 예언하고 있다

列邦諸人緘口無言 火龍赤蛇大踰東方
열방제인함구무언 화룡적사대륙동방

滄海半島天下 一氣再生神
해우반도천하 일기재생신

利兒機打破滅魔 人生秋收糧米端頭驅
이건기 타파멸마 인생추수조미단풍구

飛 糟飄風之人 弓乙十勝
비 조표풍지인 궁을십승

“열방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마라. 火龍(화룡), 赤蛇(적사) 즉 화룡인 병진년(丙辰年)과 적사인 정사년(丁巳年)에 대륙 동방 바다 모퉁이 반도에 서 천하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다시 태어난 분이 있다. 이 분은 보기만 하여도 이로운 기운과 같이 마귀를 쳐서 멸하는 분이다. 이 분은 인생을 추수하러 오신 분이신데, 이 분은 어떤 성씨로 오시는 분이신가 하면 지계미 조(槽)에서 쌀미(米)자를 바람 끝에 날려 보낸 분이 다(그러면 무리 조(曹)만 남는다). 지계미 조(槽)를 쪼개서 바람에 날려 보낸 조(曹)씨로 오시는 분이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주인공인 궁을십승이다.”

주해(註解):
가. 화룡(火龍)의 화(火)는 오행상 병(丙)이고 룡(龍)은 진(辰)이니 丙辰年이다.

적사(赤蛇)의 적(赤)은 오행상 정(丁)이고 사(蛇)는 사(巳)이니 丁巳年이다. 나. 병진년(丙辰年)은1976년의 병진년이다.

정사년(丁巳年)은1977년이다.

그러나 영모님의 생년은 정사년인 1917년이다.

그리고 예정된 구세주의 영적 생년은 병진년인 1976년이다.

위의 새41장의 내용은 분명히 한 분만을 예언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두 분의 주인공을 같이 예언하고 있다. 즉 화룡(火龍)(화룡적사)인 丙辰丁巳年(병진정사년)의 두 해를 같이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 예언내용이 辰巳聖人出(진사성인출)의 본 예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이 합덕합일하여 일인출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전도관 제7편

三. 동방의인 영모님은 조희성님에게....

박태선 영모님은 정사생(1917년 丁巳生)이다. 이분이 동방의인으로 예정되어 1917년 정사년에 출생한 후 일본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시어 구세주를 낳으시는 영모(靈母)님이 되신다. 이분이 병진년(丙辰年)인 1976년에 예정된 아들인 예정된 구세주를 낳으셨다. 바로 영적인 아들 조희성님이다.

모든 사람들이 개벽의 주인공이 왜 진(辰)과 사(巳)를 합쳐서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병진생(丙辰生)과 정사생(丁巳生)의 두 성인이 합일되어 일인출된 분이 개벽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즉 진년(辰年)에 출현한 성인과 사년(巳年)에 출현한 성인 두 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분의 성인이 합일되시어 일인출하기 때문에 진사성인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언된 기록을 보자!

金木合運東西로서 地上仙國創建이라
금목합운동서 지상선국창건

先出其人後降主로 無事彈琴千年歲 라
선출기인후강주 무사탄금천년세

勝運論 승운론

“서방의 신인 금운과 동방의 신인 목운의 운이 합쳐져서 지상천국을 창건하신다. 먼저 나온 그 사람 즉 목운 박태선님과 뒤에 나오시는 금운인 구세주가 아무 일도 없이 천년을 거문고를 타면서 지내시는구나”

목운 박태선 엄마와 금운 조희성 아드님 운이 합하여져서 지상천국을 건설하

신다고 예언되어 있다. 물론 영적인 엄마와 영적인 아들을 말한다. 목운 박태선 엄마는 정사년(丁巳年)에 태어나시고, 금운되시는 아들인 조희성님은 병진년(丙辰年)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성인이 합일되시어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진사성인출 된 분이 지상천국을 건설하시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위의 새 41장과 승운론을 비교하면서 자세히 참고 바람) 여기서 진사성인출(辰巳聖人出)이라는 말을 금목성인출(金木聖人出)이라고 바꾸어 불러도 같은 뜻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 병진년에 조희성님이, 정사년에 박태선 영모님이 출생하시어 진사성인출의 여건이 여기서 마련된 것이다. 병진년에 출생한 아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받은 구세주가 되신다(묵12:5,묵2:26 참조). 이후 병진년에 태어나신 예정된 구세주님은 1978년에 밀실(密室)로 보내져 1260일간 연단받고 양육받게 된다(묵12:6 참조).

그리고 1980년 10월 15일 조희성님은 승리하시어 인류의 구세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위 새41장의 문장에서 화룡적사(火龍赤蛇)는 두 분의 주인공을 합해서 말한 것이다. 이 두 분이 합일되어 인생을 추수하는 완성자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분 완성자 구세주는 조씨 성으로 오신다고 예언된 것이 바로 새 41장이다. 그리고 이 조씨 성을 가진 분이 인생을 추수하러 오시는 구세주라는 것이 새41장의 내용인 것이다.

참고 성경:
가. “아이를 낳으매 곧 낳자라. 잠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니(묵

12:5)” - 1976년 丙辰年; 영적으로 태어난 해

나. “그 여인이 도망하여 골야로 가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 거기 있으니(묵12:6)” - 1978년 밀실(密室)에 들어가 연단받음.

다. “1260일 동안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리라(묵12:6).” - 밀실에서의 연단기간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왜 한 분은 육적으로 태어난 날로 따지고 한 분은 영적으로 난 날을 따지는지 의문을 가지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은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게 가려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격암유록 승가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해 놓고 있다.

先後到着秘文法이 隱晦藏尾混亂하여
선후도착비문법 은두장미혼란
次序判端不覺故로 日去月誥不顧로다.
질서판단불각고 일거월거불고

“비문법은 선후의 순서도 없고 머리는 숨기고 꼬리는 감추어 혼란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서마저 판단할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게 기록한 까닭으로 날이 가고 달이 지나도 이러한 비문법을 돌아보는 자가 없으리라.”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보듯 예언이라는 것은 아무나 풀 수 없게끔 혼란스럽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다.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야만 풀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도덕경 해설

無爲而無不爲
무위이무불위

함이 없는 행에 다다르면 못할 것이 없다

도덕경 48장 해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산다. 배우지 못하면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 구실을 할 수 없으면 존재한다는 것이 해가 되고 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배우는 것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으로써 인생의 근본 목적과 삶의 가치, 그리고 보람과 의미를 완전히 터득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일 뿐이다. 진실로 인간다운 삶을 성취하려면, 지상선국을 건설하려면, 도를 터득해야 한다. 도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배우는 직업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도를 공부하는 것은 이 우주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운행되는가. 또한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하는 인간 존재

의 본질적 의문을 깨달아 인간 본질에 부합되는 삶을 부단히 살아, 결국 인간 완성을 이루고가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학문은 인간의 참다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되찾는데 기초적인 지식(업業)에 불과하나, 도는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근본 이유와 의미를 깨달아 본래의 인간의 진면목(순수본성)을 회복하는 데 절대적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세상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매일매일 마음의 부담과 구속함에 이르게 하는 부자유스러운 짐을 짊어지는 것이라면, 반대로 도를 공부한다는 것은 인위적

이고 가공적으로 지워진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참자유와 지극히 즐겁고 유쾌한 열락의 세계로 인도하는 최고의 경지(비움)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함인 것이다. 비움의 행은 곧, 무사공평(無邪公平)한 경지로, 이는 능히 천하를 다스려 태평성대(太平聖代)를 이룰 수 있는 대도와 대덕을 품은 도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지상에서 지상선국 건설은 불가할 것이다. 인간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치와 대의를 먼저 깨닫고 실천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위화일의): 학문하는 것은 하루하루 보태는 것이다

세상이 사망 아래 있는 사조(死潮)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바, 이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해지는 업장(業障)과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爲道日損(위도일손): 도를 하는 것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이다

도를 닦는 것은 죽음의 조류를 거슬러 본래의 인간의 본성(영원한 생명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세상 학문은 쌓아나가도 죽지만, 도를 닦으면 인간의 대비극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도란 인간에게 유익된바, 이를 갈고 닦는 행위는 번뇌와 업장을 덜어내어 영원한 생명과 순수본성을 회복하는 올바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損之又損(손지우손):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以至於無爲(이지어무위): 함이 없는 행에 도달하게 된다

본성에 위배되는 가아(假我)가 끼어들 수 없는 상태 즉, 진

아(眞我)가 본 마음자리에 자리하여 거스름이 없는 행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無爲而無不爲(무위이무불위): 함이 없는 행에 다다르면 못할 것이 없다

인간의 진아(순수본성)는 전지전능한 신성을 회복하는 위치에 있음으로 못할 것이 없고 억지적이지도 않아 만사가 순탄하다.

取天下常以無事(취천하상이무사): 천하를 취하려 한다면 항상 함이 없는 행(行), 즉 무사(無邪)로써 해야 할 것이다

무사의 마음은 욕심과 이기심이 없는 빈 마음이다. 오직 인간과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만 그 뜻이 있을 뿐이지 사욕이 털끝만큼도 없다.

及其有事 不足以取天下(급기유사 부족이취천하): 천하를 취하려는 데는 가아적인 마음(有事)이 주장하는 상태, 즉 유사(有邪)하면 천하를 취하기에 부족하다.

삿된 욕심과 감정이 있는 상태가 유사한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도 호응하지 않아 천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8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